

항만건설현장 76곳 집중안전점검 “중대재해 사전 차단”

- 4. 29.~6. 17. 전문기관 합동점검, 위험요소 즉시 시정 및 맞춤형 컨설팅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9일(수)부터 6월 17일(수)까지 국가관리항만 내 항만건설현장 76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 방파호안(1단계1공구) 축조공사', '인천남항 예부선 계류지 정비 공사' 등 시공 중인 전체 항만건설공사 대상

이번 점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대형장비 사용이 잦고 해상작업이 많은 항만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재해위험 유형인 끼임, 떨어짐 등 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별 맞춤형 컨설팅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관리 우수 현장에는 포상을 수여하고, 현장 간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은 집중 컨설팅과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항만건설현장은 추락, 끼임, 익수 등 자칫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현장 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근로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손원권 (051-773-5950)
	항만기술안전과			담당자

참고

2026년 상반기 항만건설현장 안전점검 계획

□ 추진배경

- 시공 중인 항만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반기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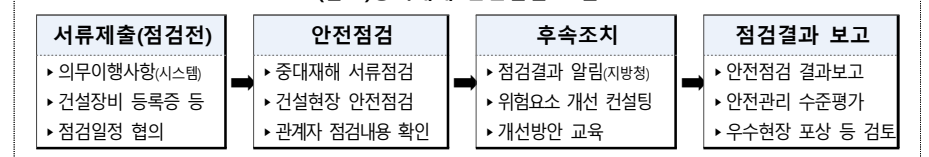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6. 4. 29.(수) ~ 6. 17.(수) / 50일간
- (점검기관) 해양수산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 (점검대상) 시공 중인 76개소 현장

구 분	합계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점검대상	76	10	8	10	3	2	6	7	13	9	6	2

- (점검내용) 종사자 안전 유해·위험요소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 점검
- '25년 지적사항 개선여부 및 항만건설현장 주요 재해위험 유형인 끼임, 떨어짐, 맞음, 넘어짐 등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 (참고)중대재해 안전점검 흐름도 】



□ 향후계획

- 안전점검 시행(~6.17.),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강령·교육(6월 중)